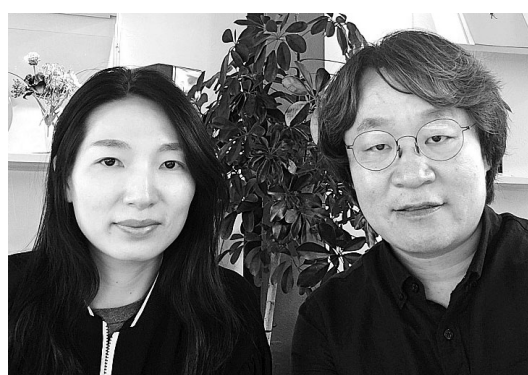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교사 에세이 ‘따스한...’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삽화는 영어교사 박소영씨가 그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올해로 교직생활 19년차인 이호동 교사는 ‘사명’이 있다. 광주 경신중 과학교사인 그는 작가와 강연가, 학교폭력예방운동가, 전문상담가 등 다양한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표는 한 가지.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겠다’는 것이 절제절명의 과제다.

이 작가에게는 남모름 아픔이 있다. 그 또한 과거 학창시절 때 학교폭력 피해자였다. “그 누구도 과거의 나처럼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또한 가해자도 되지 않게 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는 모든 관심이 ‘학폭 예방’에 집중했다. 이 교사가 최근 시와 에세이를 담은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가현정북스)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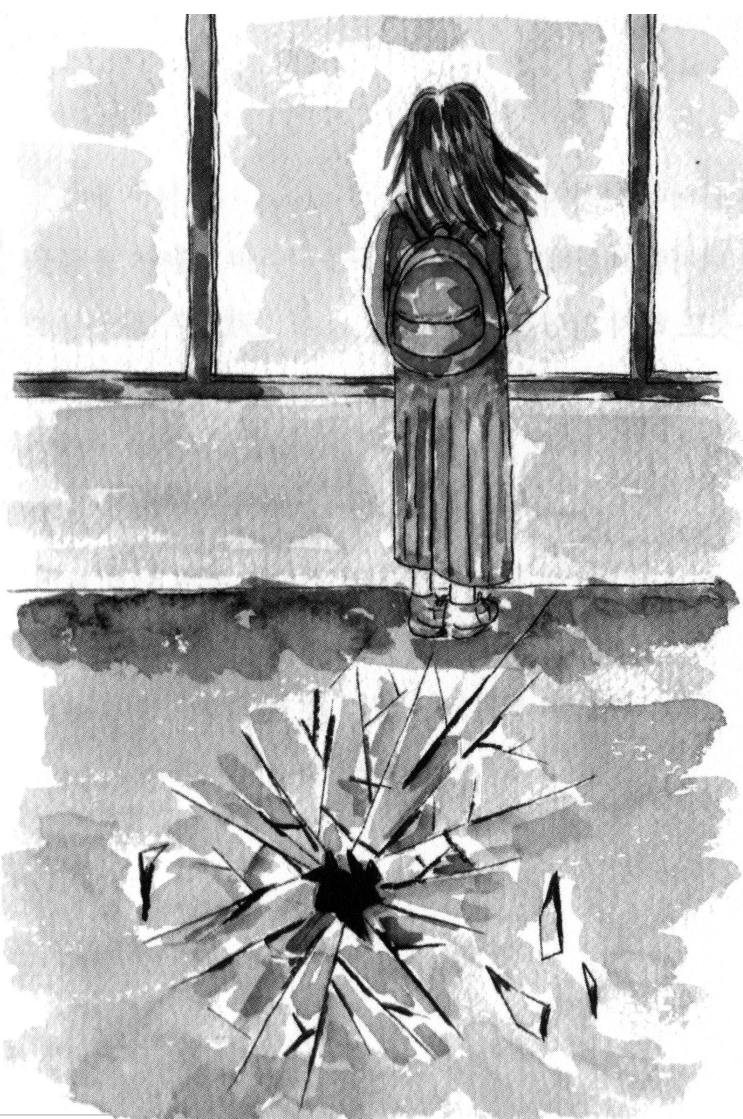
“청소년 시절의 나처럼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 학폭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따스한 바람이 되고 싶어 글을 쓰고 전국을 다니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은 그렇게 학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위안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19년간 노력해왔던 경험과 유가족들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간간이 시로 풀어낸 사연들을 읽다보면 가슴 언저리가 묵직해지고 먹먹해진다.

그는 지난 2005년 3월 처음 교직을 시작할 때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 2년 전부터는 교실이 아닌 밖으로 나와 학폭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이 작가는 “희망을 품고 꿈을 꾸며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의 괴롭힘으로 세상을 제버리는 소식들을 종종 접하곤 한다”며 “그런 소식을 접한 날은 참담함과 가슴의 먹먹함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작가가 직접 쓴 시 가운데 피해 가족들이 많이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에는 학폭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공감해준 작품이 있다. ‘달이 되련다’는 학폭을 견디다 못해 먼 길을 떠나버린 학생에 대한 애처로움을 담은 작품이다.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책에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학폭 예방에 관한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이 교사는 전국의 학교에 교편을 지키고 학생을 지키는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여름방학 때는 1급 정교사 연수를 받는 교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담임 교사는 반 학생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반에서 학폭이 일어나면 누가 신고해 주지 않는 이상 알기가 쉽지 않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학폭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저 또한 교직 경험이 부족했던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구요. 그 뒤 ‘단 1건의 학교폭력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 만든 것이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입니다.”

그가 제안하는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학기 초 인원을 뽑을 때 인원의 조건으로 폭력을 신고해 줄 사람을 뽑는다’, ‘시시대때로 학폭사례 및 학폭예방 메시지 전달’, ‘질문에 학폭 예방 내용을 365일 적어 놓는다’, ‘반톡방에 학폭 관련 뉴스 및 학폭 메시지를 전달한다’ 등이다.

이 교사는 “시스템을 반에 도입하고 난 뒤부터는 단 1건의 학교폭력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공유를 받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적용해 증명해 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학생을 지키겠다는 ‘교사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에 예방이 가능했다”며 “교사의 교편까지 지켜주는 이유는 이 시스템 안에는 학생의 행복을 바라고 학생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최상의 가치는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은 부모를 보고, 선생님을 보고 자라기에, 학생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학생도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딘가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힘겹게 버텨가는 어린 꽃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위로해주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싶었다. 이 간절함이 그들에게 따스한 바람이 되기를. 이제는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한편 책에는 이 작가의 부인인 그림작가 박소영씨가 직접 그린 삽화들이 수록돼 있다. 영어교사인 박 씨는 남편의 책 출판을 위해 직접 그림 공부를 배웠다는 후문이다. 글과 어울린 삽화는 향기와 따스함을 전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년 아티지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업기획서 실습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모습 (일도시연구소 제공)

## 예술인 위한 문화예술행정의 모든 것

담양군문화재단, 다음달 1~15일 ‘아티지로Ⅲ’

예술인이라면 ‘예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걸 가지로 알아야 할 것이 많다. e나라도움, 법률, 문화행정, 전시기획 등이 대표적.

이 같은 문화예술행정과 공모 시스템, 지원금 수혜 및 법률 전반 대해 알려주는 강의가 열린다. 담양군문화재단, (사)일도시연구소(소장이 정현)가 담양군문화회관에서 다음 달 1~15일에 여는 ‘아티지로Ⅲ’가 바로 그것.

아티지로(指路)는 예술의 길을 안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시, 담양군 예술인과 문화활동가들에게 기초 예술소양교육, 정부지원 등을 받는 노하우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일 김옥주 교수(남부대)가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 활용방안’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2일 ‘예술인등록과 이나라도움 서비

스’ 강의, 4일 남도담뱃야시장 현장 탐방 등이 계획돼 있다.

이외 ‘예술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작’이라는 주제로 8일 애프터워크 최주희 프로젝트 매니저, ‘예술소비트렌드와 흥보마케팅 전략’은 9일, ‘문화예술인이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은 15일 진행된다. 회차당 20명 내외 선발.

광주시, 담양군에 거주하는 (예비)예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담양군문화재단과 애프터워크에서 접수 가능(31일까지)

일도시연구소 이정현 대표는 “예술인들과 예술인을 꿈꾸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과 혜택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예술활동을 지속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류민 기자 rubi@



## 하이브 “BTS 마약 연루? 황당”

배우 이선균 마약 파동 관련 업소 출입 루머...소속사 “법적 조치”

최근 연예계를 강타한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발 마약 파동과 관련해 그를 방탄소년단(BTS·사진) 멤버들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루머로 거론되자 소속사하이브(박희트뮤직)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이브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가 관련 입장을 묻자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사 아티스트와 특정 장소(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서울 시내 한 유명업소를 지칭)에 관련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해당 장소를 알지

못하며 방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당사 아티스트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한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채널이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가 이 유명업소에 드나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이브는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등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기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기2개 1000원, 옛날함도1개 1000원  
치즈함도2개 1500원, 칠팔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경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듬,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리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글리다리)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굽깔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성내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것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월청담빌라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도명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탁월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성, 출산, 태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光州日報**